

# 7

##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 모세

출 3~5장, 행 7:17~44

찬송가 372장 (나 말은 본분은), 찬양 19장 (어두운 밤길에서)



1.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일생에 대해 압니다.
2. 모세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지 압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라 (행 7:36~37)



## 을 이해하기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습니다. 또한 홍해를 갈라 육지 같이 통과한 후 시나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했으며, 시내산 언약을 세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보여주신 양식대로 세우고, 제사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이후 모세는 약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요, 인도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물과 음식이 떨어졌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으며 만나를 내려 백성이 먹게 했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는 기도로 승리를 이끌었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을 뿔뿔로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가데스에서 백성과 다투다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120세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는 훗날 마귀의 종이 되어 신을 하는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은 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봄이라 (히 11:24~26)

By faith Moses, when he became of age, refused to be called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choosing rather to suffer affliction with the people of God than to enjoy the passing pleasures of sin, esteeming the reproach of Christ greater riches than the treasures in Egypt; for he looked to the reward. (He 11:24~26)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모세는 버릴 것을 버리고,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가 버린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 ①
  - ②
  - ③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모세의 생애를 40년 간격으로 정리해 봅시다(행 7:20~37).

|      |  |
|------|--|
| 40세  |  |
| 80세  |  |
| 120세 |  |

2

모세는 애굽의 궁중생활과 광야생활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민 12:3, 히 11:24~26)?

3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에서 찾아 정리해 봅시다(신 18:18, 행 3:22).

4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히 11:26, 딤후 1:7~8)?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고후 4:17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이

고후 12:10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딤후 1:7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딤후 1:8

---

---

---

---

---

---

---

---

↓

히 11:24

---

---

---

---

---

---

---

---

↓

히 11:25

---

---

---

---

---

---

---

---

↓

히 11:26

---

---

---

---

---

---

---

---



## 황제나방의 날개

황제나방의 누에고치는 그 모양이 마치 플라스크처럼 생겼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나방이 끊임없이 고치의 목부분을 통해 비집고 나가려고 심하게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곤충학자들은 이 고통은 날개를 생기있게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자연이 강제로 행사하는 일종의 생존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 관찰자가 이 불쌍한 생물의 고통과 몸부림을 덜어 주려고 나방을 싸고 있는 실을 잘라 고통없이 수월하게 위기를 넘기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방의 날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 무지개빛 날개로 창공을 날지도 못하고 그저 조금 기어다니다가 곧 죽어 버렸습니다.

슬픔, 고통, 시련과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연단과 성장의 과정은 언제나 험겁고 지루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결국 승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욘 23:10)



## 질문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 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써 났음이라 (요일 3:9)

모든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로써 난 새로운 본성과 아담에게 물려받은 옛 본성이 그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믿는 사람 속에 심기운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의 옛 본성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요일 1:9, 2:1).

어떤 사람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였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주님의 부활로 새로운 생애를 살도록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구별되게 살도록 이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일시적으로 불신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죽였으며,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베드로도 외식(外飾)하였던 적이 있으며(갈 2장), 바나바도 바울과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섰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도 있으며, 또한 죄에 대한 징계로 육체가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죄’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마르테’(단번에 죄를 짓는 행위를 의미)와 ‘하마르타네이’(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가 그것인데 요한일서 3장 6, 8, 9절에서는 ‘하마르타네이’가 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3장 9절의 의미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로써 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새로 심기워진 하나님의 씨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 씨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 거하므로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 즉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고의로 그 죄에 붙잡혀 살지는 않습니다.